

광주서부교육청 발간 '교사, 자치로 깨어나다' 세종도서 선정

# “학교생활 속 얘기로 학생자치 쉽게 풀었어요”

김경희 등 광주 교사 10명 참여  
출판 지원 사업 통해 발간  
공공도서관 등 전국에 보급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발간한 '교사, 자치로 깨어나다'가 올해 세종도서 교양 부문에 선정됐다.

'교사, 자치로 깨어나다'는 교사들이 들려주는 학교 자치 실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책은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4년째 추진 중인 '선생님의 책을 출판해 드립니다' 사업을 통해 지난해 발간됐다.

저자는 광주상무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김경희 교사 등 10명이다. 이들은 학급·학년·학교·교사 조직 속에서 살아가는 교사와 학생들의 진솔한 모습을 에세이 형식으로 담아 '학생자치'의 의미를 짚었다. 김경희 교사는 29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서부교육지원청의 지원으로 이 책을 발간했고, 더 나아가 2020년 세종 도서 교양 부문에 선정돼 무척 기쁘다"며 "교사들이 자치활동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학교 현장의 자치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삼육초등학교 서혜리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숲 탐사를 하고 관련된 책을 읽으며 서로 나누는 이야기를 에세이 형식으로 쓴 '알면 보이고 배우면 느끼는 생태인문교실'도 세종도서 교양부문에 선정됐다. '세종도서 사업'은 정부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 도서를 종당 800만원 범위 안에서 구매해 전국 대표도서관,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병영도서관, 작은도서관,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2700여 곳에 보급하는 사업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서창농협, 상호금융 예수금 7000억원 달성



광주 서창농협(조합장 김명열)이 상호금융 예수금 7000억원을 달성해 농협중앙회로부터 기념탑을 받았다.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27일 서창농협에 상호금융 예수금 7000억원 달성탑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 행사에는 서창농협 임직원과 이사·감사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서창농협은 상호금융 예수금을 지난 2008년 1월 3000억원을 달성한 뒤, 2014년 5000억원, 올해 7월 7000억원을 기록했다. 올 2분기 상호금융대상 평가에서는 평가 그룹 내 2위에 선정되고 농협 상호금융 '클린뱅크' 등등급을 받기도 했다. 농협중앙회는 상호금융 예수금 500억과 1000억, 3000억, 5000억, 7000억원, 1조원 달성 때 달성탑을 주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국유네스코광주·전남협회장에 윤길 상임부회장 선출



윤길 전 유네스코광주·전남협회 상임부회장이 한국유네스코광주·전남협회 신임 협회장으로 선출됐다. 윤 협회장은 광주시교육청 기획관리국장, 금호교육문화회관장 등을 역임했으며, 23년 동안 유네스코 협회 발전에 기여해왔다. 윤 협회장은 오는 8월 1일 취임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근로정신대 아픔 바로 알려야죠” ... 투쟁 배지 만들어 기부

광주 명진고 학생회  
지난해부터 선행 이어가



광주 명진고등학교 학생회가 근로정신대 투쟁을 알리는 배지를 제작·판매한 수익금 50만원을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기부했다.

배지는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날갯짓을 하는 나비 문양과 고리가 디자인 돼 있다.

학생회는 지난해 7월 배지 200개를 판매해 기부금을 전달했던 선배들의 취지를 이어 올해도 의미 있는 일을 한번 해 보자며 배지 300개를 제작했다. 이들은 올해 초 거

울방학에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지에서 홍보캠페인을 겸해 배지를 판매했다.

학생회는 당초 3월 개학과 함께 교내 학생들에게 배지 판매 취지를 알리고 판매할



계획이였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5월로 늦춰지고 중간고사까지 겹치면서 배지 판매는 6

월로 연기됐다. 배지는 학생들이 미리 취지를 알려 희망하는 학생들만 자발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정신대 홍보 전신물을 만들어 알리고, 학생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도 진행하기도 했다.

학생회 민소정(3년)양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2층 중앙계단에서 이틀간 판매했는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좋아했다"며 "선생님들도 좋은 취지라며 기부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셔서 더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전남적십자, 코로나19 의료진에 삼계탕 전달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박홍식·왼쪽에서 두번째)가 지난 28일 코로나19 위기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 및 보건소에 광주은행 기부금을 통해 마련된 삼계탕 690팩을 전달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제공>

### TV프로그램

3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⑥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⑦	50 양코르 20주년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복면가왕 스페셜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⑧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50 찬란한 내 인생(재)	35 엄마가 바람났다
⑨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35 930 MBC 뉴스 50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⑩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기막힌 유산(재) 40 지구촌 뉴스	45 결혼계약(재)	10 SBS 뉴스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⑪	00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55 UHD 스테라	00 인간극장 스페셜		30 고향이 보인다
⑫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15 생활속 연금복권 720+ 20 반짝이는 프리채널 50 뽀뽀뽀 친구친구 스페셜	00 SBS 12 뉴스 25 만방 네트워크 뉴스 50 편의점 셋백(재)
⑬	00 TV쇼 진품명품(재)	50 나는 아픈 개와 산다(재)	20 푸르기 식사교실(재) 50 2시 뉴스 외전	00 뉴스브리핑
⑭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테레투 테디베어 마을의 비밀 45 아기사이 울리 두루두루			
⑮	00 마법소년 디디 30 열린채널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이 맛에 산다	
⑯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00 기분 좋은 날(재)	00 특특 보혈설계 55 닥터 365
⑰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곡을 달린다 40 남도스페셜	00 도봇V 2 15 캐치! 티니핑 30 주간연예수첩 5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20 2019 MBC 경영평가 결과보고 30 선을 넘는 녀석들 리턴즈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⑱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20 오매! 전라도	00 맛남의 광장(재)
⑲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위험한 약속	20 찬란한 내 인생 55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전국 TOP 10 가요쇼(재)
⑳	30 기막힌 유산	30 출사표(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㉑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30 출사표	30 심시일반	
㉒	00 다크 사이트 50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길을 묻다	40 살림하는 남자들(재)	3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00 맛남의 광장
㉓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55 스포츠 하이라이트	55 나 혼자 산다 스페셜	40 접속! 무비월드 스페셜
㉔	10 KBS 네트워크 특선 올댓뮤지	20 통합뉴스룸 ET(재) 50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재)		40 나이트라인

### EBS1

07:00 띠띠뽀 띠띠뽀	12:10 EBS 비즈니스 리뷰	18:00 생방송 특!특! 보니 하니
07:15 미니특공대 슈퍼공룡파워	12:25 세상의 모든 법칙	19:00 오즈 : 마법을 찾아서
07:30 뽀로로와 노래해요	12:30 EBS 마스터	19:30 최고대 호기심딱지
07:45 로보가 폴리	13:00 명이	19:45 자이언트 팽TV
08:00 똥덩멍 유치원	13:50 EBS 스페이스 공감	20:00 건축탐구 - 집
08:30 냉장고 나라, 코코몽	14:40 미니특공대X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8:45 워킹지 뮤직박스	15:40 해와 해요	<이것이 진짜 탐험 -아이슬란드 화산원정대>
09:00 로보카폴리 송송뮤지엄	15:50 뽀로로와 노래해요	21:30 한국기행
09:15 또깨비 가족	15:55 또깨비 가족(재)	<기다렸다, 여름 맛 4부 보현 스님의 여름 맛 공방>
09:30 몰랑	16:10 로보카폴리 송송뮤지엄(재)	21:50 다큐 잇it
09:40 극한직업(재)	16:25 워킹지 뮤직박스(재)	22:40 다문화 고부 열전
10:30 한국기행(재)	16:40 똥덩멍 유치원(재)	23:30 EBS 비즈니스 리뷰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23:45 EBS 명강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도전! 나도 과학자	
12:00 EBS 정오뉴스	17:45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30일 (음 6월 10일 甲戌) ☎ 010-9790-8237

**子** 36년생 회색할 수 있다. 48년생 지나치지 않는 선에서 과감하게 진행해야 할 때가 되었다. 60년생 진퇴를 분명히 해야 손실을 줄인다. 72년생 능력이 오르게 될 것이다. 84년생 많은 것을 주고받게 될 것이다. 96년생 행편을 보아가면서 적절하게 변모시킬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35, 88

**丑** 37년생 간단하면서도 명료함이 생산적이다. 49년생 복잡다단했던 일이 늦게나마 정리 될 소지가 있다. 61년생 천재일우의 기회와 접촉하는 판국이 확연하다. 73년생 합리적으로 실행해 나간다면 풍성한 성과를 거두리라. 85년생 기본적 가치는 불변하다는 것을 알아. 97년생 참으로 중대한 일이 벌어질 수다. 행운의 숫자 : 29, 71

**寅** 38년생 우려해 왔던 일이 현실화 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50년생 때와 장소를 잘 가리지 않으면 역효과가 난다. 62년생 영광을 안는다. 74년생 표현이 적절해야 속마음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느니라. 86년생 구태에서 벗어나야만 새로운 면모를 도모하게 된다. 98년생 생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91, 81

**卯** 39년생 핵심 골격이 수립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다. 51년생 경사가 나서 떠들썩한 마당이로다. 63년생 미약해 보 여도 큰 힘이 되리라. 75년생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이다. 87년생 정황을 정리하고 과감하게 선회해야 할 시기에 와 있다. 99년생 겹치면서 매우 분주한 하루가 되겠다. 행운의 숫자 : 16, 98

**辰** 40년생 획기적인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는 국면이다. 52년생 열린 마음으로 논의 한다면 풀리지 않을 문제가 없다. 64년생 좋은 소식을 전해 주는 이가 보인다. 76년생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응대하는 것이 낫다. 88년생 꽃피는 봄날을 맞이하리니 경사와 함반하다. 00년생 기존의 정황보다 훨씬 나은 쪽으로 변경되는 판국이다. 행운의 숫자 : 23, 50

**巳** 41년생 전방위 적인 안목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53년생 경사가 나서 떠들썩한 마당이로다. 65년생 현재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확실치 벗어나야만 한다. 77년생 실익이 없다면 나설 이유도 없다. 89년생 한없는 고마움을 느낄 것이다. 01년생 힘들다고 해서 다른 방향으로의 선회나 포기 할 필요는 없다. 행운의 숫자 : 44, 67

**午** 42년생 일관된 소신으로 단호하게 결단하지 않는다면 두고 두고 앓을 태을 것이다. 54년생 굳은 각오로 임한다면 반드시 흥성도 사라지리라. 66년생 오관을 할 수도 있다. 78년생 투명하게 밝힌다면 쉽게 융합 될 수도 있다. 90년생 보편적 인 것이 무난하다. 02년생 자신도 실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겸손할 줄 알아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20, 59

**未** 31년생 미동도 하지 말아야겠다. 43년생 처지와 분수에 맞 아만 유용하리라. 55년생 알차고 보람 있었겠다. 67년생 흥과 북이 반반이니 의연히 대처하라. 79년생 대응해야 할 때가 되었으니 추진하는 것이 옳다. 91년생 구조를 개선해야 낭비를 막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46, 82

**申** 32년생 관여할 필요가 없다. 44년생 시각적으로만 판단하면 오류가 생긴다. 56년생 요행수는 꿈꾸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68년생 부담스럽다면 애초에 감당하지 않는 것이 낫다. 80년생 직접 체험하는 것이 낫다. 92년생 생산성도 모호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행운의 숫자 : 01, 96

**酉** 33년생 노력이 쌓여서 성과가 나타난다. 45년생 평소 소 잘 관리해 두었다면 활용하기에 적절한 시기에 이르렀다. 57년생 여단수족의 환경에 처한다. 69년생 간단한 문제가 결코 아니므로 개별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유리하다. 81년생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충분하다. 93년생 여건과 어울려만 우리가 따르지 않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9, 95

**戌** 34년생 자제하는 편이 훨씬 더 낫다. 46년생 빙 둘러서 표현하는 것도 수준 높은 처세법이라 할만하다. 58년생 고민 한다고 해서 즉시 해결 될 일이 아니로다. 70년생 길조가 비추고 있다. 82년생 과욕 한다가나 성급하게 임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처리해야만 무탈 하리라. 94년생 계획이 수립 되었으면 미루지 말고 실행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19, 91

**亥** 35년생 길고 짧은 것은 대보아야 한다. 47년생 이면에 제가 해 버려야 후환이 없다. 59년생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다. 71년생 거시적 안목이 필요한 때이다. 83년생 상대에게 끌려 다니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도해나가야만 하느니라. 95년생 생산적인 정황이다. 행운의 숫자 : 13, 87